

산책하는 미지의 조각 갤러리

원주 아트갤러리

김광수

스튜디오 케이웁스 대표

건축사사무소 커튼홀 공동대표

개요

위치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1708 외 1필지(원주여성가족공원)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54,246m ²
건축면적	326.17m ²
연면적	324.89m ²
규모	지상 1층
주차	5대
높이	3.8m
건폐율	0.6%
용적률	0.6%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노출콘크리트, 벽돌
내부마감	노출콘크리트, 페인트
설계	건축사사무소 커튼홀(스튜디오케이웁스), 김광수
설계담당	권혁태
구조설계	(주)밀레니엄 구조
시공	무한건설주식회사
기계설계	(주)주성이엔지
전기설계	기술사사무소 우림전기
사진	김용관
설계기간	2020.5.~2020.11.
시공기간	2021.5.~2022.10.
공사비	15.2억 원
건축주	원주시



뒷동산 산책로에서 바라본 원주 아트갤러리



특별한 주출입구 없이 공원 산책과 함께 공간을 거니는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진출입이나 동선 흐름의 동세와 그 산세를 감안하며, 이 건축물이 대지 및 공원과 하나 되어 안착한 느낌을 주고 싶었다.



© 리움
한영민

카페 휴게공간



© 리움
한영민

홀 내외부 모습



©김웅관



©김웅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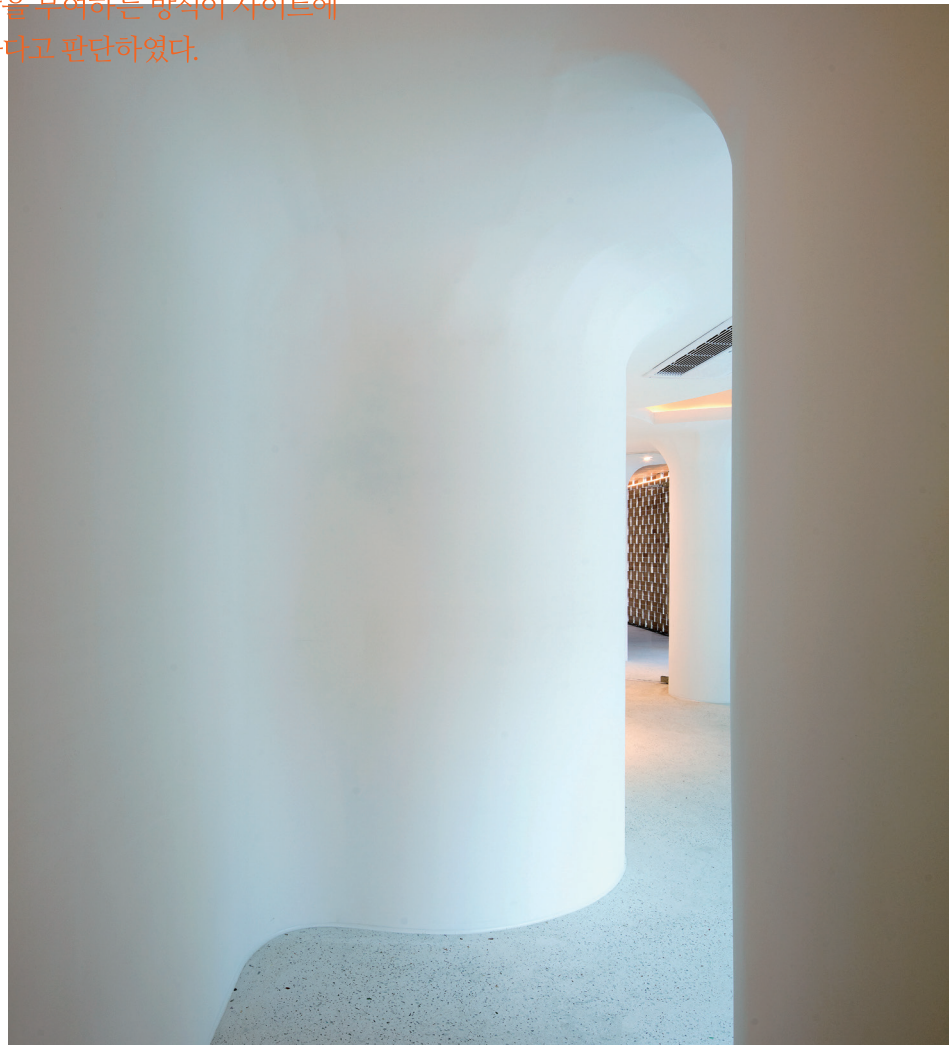
상 내측 진입부
하 두 갈래로 갈라지는 동선



©김웅관

복도 내외 뷰

동선의 흐름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벽 혹은 하나의 선이 지붕과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두 갈래의 길이 생기고
알코브들이 형성되어 공간의 불투명성과
두께감을 부여하는 방식이 사이트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공원 ©

전시공간에서 보는 복도

공원과 공공공간

대상지는 원주시 단구동의 커다란 아파트 단지들로 둘러싸여 있는 비교적 작지 않은 근린공원 안에 위치한다. 대상지를 처음 가 보았을 당시, 아침 시간 또는 저녁 식사 시간 이후에 이 공원의 언덕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돌고 도는 산책하는 주민들의 모습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었으며, 그 이후로도 이 공원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소중한 장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곳에는 공중화장실도 없었고, 걷다가 쉴 만한 휴식공간도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초연결사회의 건축

설계를 시작할 무렵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2020년 5월이었기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이 집 안에 고립된 채 있었지만, 고립과는 반대로 초연결사회 및 투명사회가 심히 가속화되어 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끝난 이후에는 해외를 나가 보아도 구글 서비스 등으로 별 저항감 없이 매끄럽게 동선이 이어지고, 해외여행에서조차 예기치 않았던 발견이나 경험을 좀처럼 하기 힘들었다. 진정한 의미의 외부가 닫혀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제 미지의 감각을 느끼고 미지의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힘든 세상이 되어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초연결사회에서 앞으로 건축은 어떠한 해야 하는가 하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던 시기였다.

새로운 시도의 문화예술공간

이러한 실정에서 공간을 먼저 조성하고 그에 맞게 조각 작품의 커미션을 의뢰해 조각품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조각 갤러리 조성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참신한 발주처의 접근에 힘입어 설계는 진행되었다.

사용의 불확정성이라는 이름 아래 특성 없이 무수히 들어서는 건축물들과 중립적 공간들의 진부한 증식들을 그동안 많이 보아 왔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건축물에 과도한 성격을 부여하면서 내부의 작품들이 건축물과 괴리되는 문화예술공간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문화예술시설이 나아갈 방향이 마치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듯한 현대건축의 상황에 대해 다소 회의

©김종민



상 원주 아트갤러리 전경
하 뒷동산 산책로에서 보는 뷰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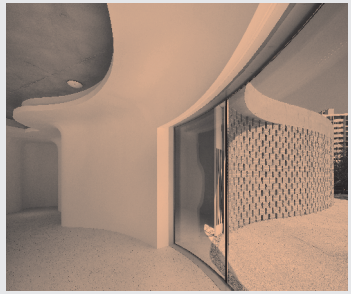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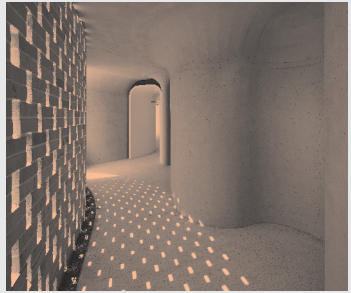
평면도

적이던 필자는 ‘조각이라는 미술작품과 건축물이 일체화되는 작업을 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하며 설계에 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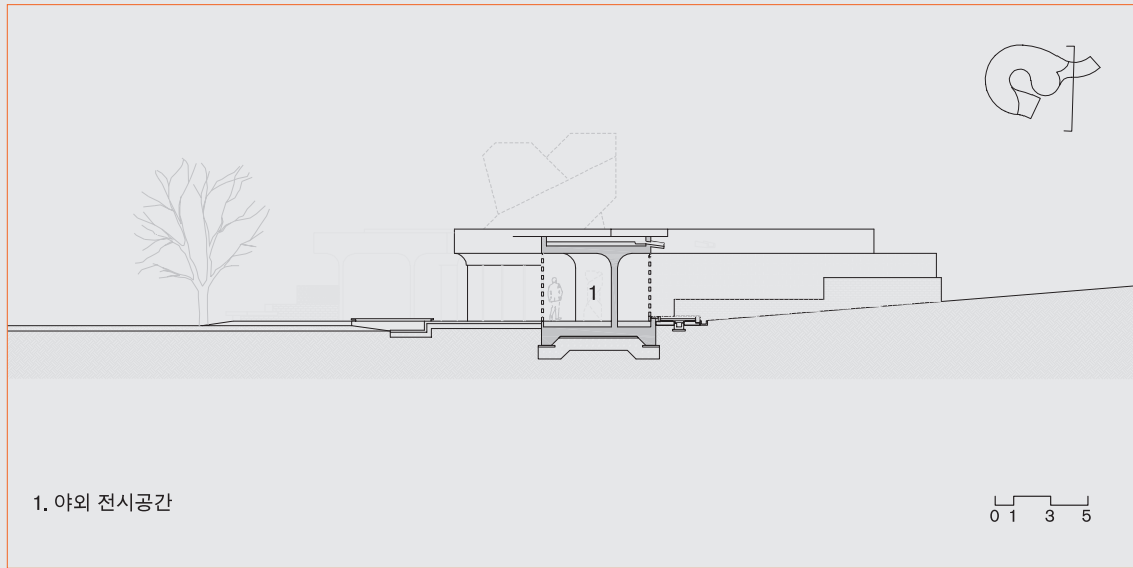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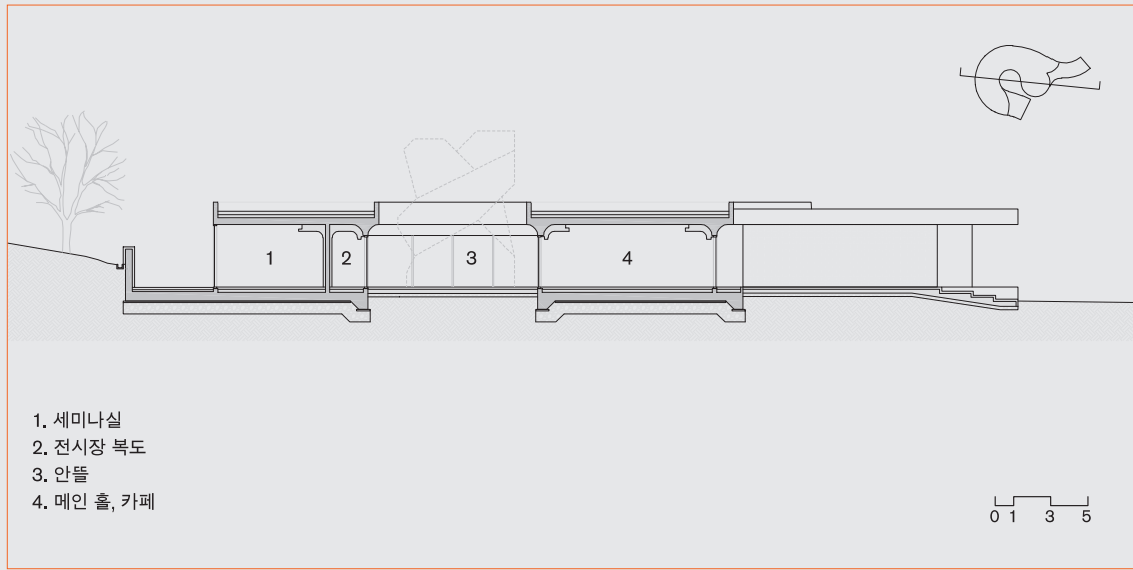
발주처는 문화예술공간이 척박한 원주시 내의 여러 근린공원에 사진 갤러리와 도예 갤러리 등 소규모의 특색 있는 문화공간을 산발적으로 건립해서 동네 문화예술 활동과 시 단위의 문화예술 활동을 교차시키며 지역별 특성을 부여해 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들리는 상황이었기에, 1차로 시작하는 이 사업이 특히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산책과 우연한 발견

앞서 언급한 배경들 속에서 ‘산책’과 건축적 불투명성을 통한 ‘미지의 감각 회복’을 설계의 키워드로 삼고 작업하였다. 또한 이 작업은 건축가 알도 반 아이크(Aldo van Eyck)가 설계하였던 조각 파빌리온과의 대화이기도 하였다. 알도 반 아이크는 근대적 건축 구법으로 건축물을 구현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중세적인 미지의 감각이 느껴지는 건축가라고 생각하였었는데, 특히 그의 설계에 종종 등장하는 알코브(alcove)나 미로와 같은 구성은 이러한 감각을 배가시킨다고 보였다. 필자 역시 이 조각 갤러리의 작업에서 공간의 ‘투명성’보다는 ‘불투명성’을 주제로 하였지만, 여러 개의 벽을 통해 이를 구현한 알도 반 아이크와는 달리 동선의 흐름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벽 혹은 하나의 선이 지붕과 일체화되어 지속적으로 이어지며 두 갈래의 길이 생기고 알코브들이 형성되어 공간의 불투명성과 두께감을 부여하는 방식이 사이트에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동선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문득문득 조각이 발견되는 구성을 의도하였다. 또한 동선과 조각 작품의 밀착감, 공간 및 평면 스케일의 응축과 펼쳐짐이나 동세등이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는 마치 석굴암에서 불상을 거리감 없이 밀착된 상태에서 대면하게 되는 그런 것을 의도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상 내측 진입부
중 홀 내외부 모습
하 카페 휴게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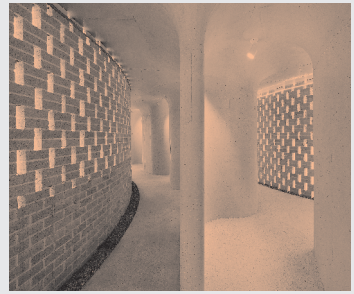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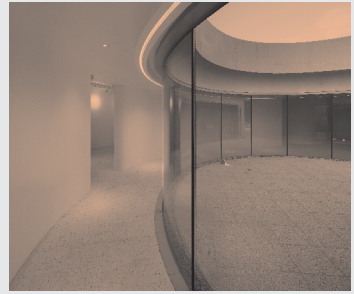
단면도

그리고 수시로 방문하게 되는 주민들의 일상성을 생각하였을 때 시간과 계절에 따라 빛과 작품의 관계와 느낌이 달라질 수 있으면 하였다. 특별한 주출입구 없이 공원 산책과 함께 공간을 거니는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방면의 진출입이나 동선 흐름의 동세와 그 산세를 감안하며, 이 건축물이 대지 및 공원과 하나 되어 안착한 느낌을 주고 싶었다.

건축에 남은 바람

건물의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곡면이 많은 관계로 3차원 철판 거푸집을 사용해야 하였기에 시공사에서도 심혈을 기울여 작업하였다. 참여 주체들이 사후설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였으며, 관계 공무원들과 감리자·시공자 등이 모두 함께 좋은 건물을 완성해 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 전 과정에 열성적으로 참여하였기에 나름의 완성도를 가지고 건축물을 준공할 수 있었다고 본다.

하지만 준공 직후 원주시의 시장이 바뀌면서 이 건물은 1년 가까이 방치된 상태로 있었다. 내부에 곰팡이가 슬기도 하였으며 주민들의 휴식공간이자 카페로 계획되었던 공간의 주방과 리셉션 시설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모두 철거가 되기도 하였다. 산책로를 오가던 주민들도 이 시설이 빨리 오픈되기만을 기다린다고도 하였었는데, 그러고도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야 이 시설은 개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진행 중이던 조각 작품들의 커미션 계획은 모두 무산되었기에 이곳은 조각 갤러리라기보다는 어중간한 상태의 문화시설이 되고 말았다는 아쉬움이 든다. 공공건축을 진행하며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거나 취지와 동떨어져 어중간하게 시설이 쓰이는 경험을 종종 하였던 나는 아직도 이러한 상황들이 횡행하는 우리나라의 공공건축사업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었으며, 언젠가는 이 시설이 더욱 제대로 자기 자리를 찾기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상 복도 내의 뷰
하 두 갈래로 갈라지는 동선